

석사학위논문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진 나 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오정은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진 나 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오정은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위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진 나 라

진나라의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김 혜 련 (인)

심 사 위 원 박 우 (인)

심 사 위 원 오 정 은 (인)

국 문 초 록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진 나 라

본 연구에서 ‘다문화 합성어’란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는 ‘다문화’에 다른 단어를 결합하여 ‘다문화+ α ’의 형태를 가지는 용어를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국내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용어가 흔하게 사용된다. 특히 다문화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다문화’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일반인 인식을 조사하고자 서울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다문화’에 대하여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떠올렸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대부분이 ‘다문화여성’에 대해 ‘전업 주부 결혼이주여성’, ‘피부색이 까맣고 가난하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다문화아동·어린이’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도 ‘피부색이 까맣고 가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수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언어를 구사한다’ 또는 ‘한국어가 서툴다’와 같이 언어로 이들을 판단하는 문제도 나

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합성어는 편견 이미지를 반영하여 해당 대상들을 지칭하는 문제가 있다. 다문화 합성어에 대해서 접촉 경험을 조사한 결과, 포괄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보다 세부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다문화 합성어가 약자를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차별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문화 합성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다문화’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문화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교 1학년 필수 교양 과정으로 다문화 관련 수업을 개설한다. 셋째, 무분별하게 다문화 합성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임을 인지하고,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차별적 표현임을 분석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합성어 사용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주요어】 다문화합성어, 대학생, 인식조사, 다문화여성,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교육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6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8
제 2 절 이론적 배경	11
1) ‘다문화’의 개념	11
2) ‘다문화 합성어’의 개념	12
3)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점	14
제 3 장 연구 설계	16
제 1 절 연구가설	16
제 2 절 연구모형	18
제 3 절 연구 도구 및 분석방법	19
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9
2) 설문 설계 및 조사 방법	22
3) 분석방법	23
제 4 장 연구결과	24
제 1 절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차별 인식	24
1)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	24
2) 다문화 합성어의 이미지	27
3)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	36

4) 연구결과 논의	43
제 2 절 연구가설 검정 결과	47
1) 대가설 1의 검정	47
2) 대가설 2의 검정	51
3) 대가설 3의 검정	55
4) 가설 검정 결과	58
제 5 장 결론	62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2
제 2 절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성	64
참 고 문 헌	67
부 록	70
ABSTRACT	78

표 목 차

[표 4-1-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표 4-1-2]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접한 경험	25
[표 4-1-3]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사용한 경험	26
[표 4-1-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의 관계	27
[표 4-1-5]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국인’ 인지에 대한 인식	40
[표 4-1-6]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국 인’인지에 대한 인식	40
[표 4-1-7] 외국인밀집지역 방문 경험 정도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 국인’인지에 대한 인식	41
[표 4-3-1]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 여성’에 대한 형용사 선 택 분석결과	48
[표 4-3-2]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 아동’에 대한 형용사 선 택 분석결과	48
[표 4-3-3]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결과	49
[표 4-3-4] 전공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용어 접촉 경험	52
[표 4-3-5] 전공에 따른 ‘다문화아동·어린이’용어 접촉 경험	52
[표 4-3-6] 전공에 따른 ‘다문화인’용어 접촉 경험	53
[표 4-3-7] 전공에 따른 ‘다문화장병/군인’용어 접촉 경험	54
[표 4-3-8] 다문화가족 출신여부에 따른 ‘사람지칭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차별 인식	55
[표 4-3-9]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여부에 따른 ‘사람지칭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차별 인식	56
[표 4-3-10] 유학경험에 따른 ‘다문화가족’용어에 대한 차별 인식	57
[표 4-3-11] 전체 가설 검정 결과	58
[표 4-3-12]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 여성’에 대한 형용사 선 택 분석 결과	59

[표 4-3-13]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 아동’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 결과	60
[표 4-3-14]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 결과	60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7
[그림 3-1] 연구모형	18
[그림 4-1-1] ‘다문화’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	28
[그림 4-1-2]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신분과 이미지	30
[그림 4-1-3] ‘다문화아동·어린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과 이미지	32
[그림 4-1-4]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과 이미지	33
[그림 4-1-5] ‘다문화여성’에 떠오르는 형용사	35
[그림 4-1-6] ‘다문화아동’에 떠오르는 형용사	35
[그림 4-1-7] ‘다문화청소년’에 떠오르는 형용사	36
[그림 4-1-8] 우리 사회 ‘다문화’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37
[그림 4-1-9] 다문화 합성어는 차별인가	38
[그림 4-1-10]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국인’인가	39
[그림 4-1-11]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할 필요성이 있는가	41
[그림 4-1-12]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해야 하는 이유	42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필요성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의미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사용되곤 한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서 다른 문화나 인종 등을 비교하는 시선이 반영된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닌, 차이와 상대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를 포함한 단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가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다문화’의 본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다문화 관련 대상이 약자라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는 언어 습관이다(하재연, 2018: p.1).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국내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용어가 흔하게 등장한다.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여성’부터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 ‘다문화부부’, ‘다문화아동’등 다양한 용어가 생성되어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모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다문화’와 ‘비다문화’로 구분 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22년도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차별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홍보물 차별표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다문화’와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된 단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오정은, 2022: p.25). ‘한국인이 아닌 대상’을 행정적으로 지칭할 때 ‘다문화’로 수식하여 용어를 쉽게 활용하는 경향이 보여졌으며, 이러한 단어는 차별로 분류된다(오정은, 2022: p.46).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문화로 수식되는 대상을 차별하고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의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7년 2,180,498명으로 4.2%에서 2019년 2,524,656명인 4.9%로 매년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국내체류외국인이 1,956,781명인 3.8%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의 결혼이민자의 통계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160,653명에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11월 기준 174,632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귀화자는 2017년 11월 기준에 따라 169,535명에서 2021년 11월 기준 210,8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육부의 2021년 4월 교육통계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이 2017년 4월 109,387명으로 나타나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1.9%를 차지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0.3%의 비율로 증가했다. 2021년 4월에는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에서 3.0%를 차지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구의 가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2021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라 총 가구원 수는 1,119,267명(전체 인구대비 약 2.2%)이다. 이 중 결혼이민자 15.6%, 귀화자 17.5%, 자녀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구성원과의 통합보다 합성어를 만들어 분류하고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를 포함한 합성어는 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이로써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무의식 속에 차별 인식을 심게 된다.

차별적 요소가 있는 다문화 합성어는 다문화 사회 또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가 계속해서 사용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구분에 무감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로 남게 되고, 주변화 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공식 기관과 미디어, 언론 등에서 다문화 합성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기억된다. 이렇게 사용된 용어는 일반화 될

수 있으며, 무의식 속에 ‘차별, 연민, 약자’등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본래 ‘다문화’의 의미는 사람과 결부된 개념이 아니나 국내에서는 주로 사람을 지칭한다. 다문화는 다양성을 뜻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최희선, 2018: p.10). 다문화 합성어도 다문화가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 상세하게 구성된 개개인을 지칭한다. 동일 대상을 일컫는 경우에 사람과 기관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서종남, 2010: p.146). 예를 들면, ‘다문화어린이’, ‘다문화초등학생’, ‘다문화아동’ 또는 ‘다문화장병’, ‘다문화 군인’등이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 120조에서도 ‘다문화장병’을 ‘부모 중 한 쪽 이상이 외국국적 출신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장병’용어는 당사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 3장 다문화장병의 복무’의 존재가 이들이 구별되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때문에 이러한 용어는 구별과 배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조선웅, 2020: pp.317-318).

요컨대 우리 사회는 ‘다문화’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 관련 용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된다. 많은 선행연구(장한업, 2011; 이민경·이수정, 2011; 최유숙, 2017; 최희선, 2018;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오정은, 2023)에서도 특정 대상을 구분 짓는 ‘다문화’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접촉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다문화(Multi-Culture)’는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다면성 의미가 사라진 채 ‘다문화가족’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정기선, 2021: p.2).

‘다문화’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모하여 사용되면서 다양한 합성어가 생겨났다.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칭함으로써 그들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최근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인터넷에서도 다문화 용어의 문제점을 논하는 다수 의견이 발견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민자 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다문화’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강성식, 2019, 재외동포신문). 초기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 많았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취약가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모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강성식, 2019, 재외동포신문).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들은 순수 한국인과 다른 시선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아동·어린이·청소년과 같은 용어 앞에 ‘다문화’를 붙여 이들의 배경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문화 합성어로 불리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하거나 약자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 다문화 합성어는 사용 과정에서 차별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선입견이 담긴 이미지가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무의식적인 차별로 이어진다. 즉 대상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되거나, 특별하거나 약자라는 이미지를 내포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합성어의 개념과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다문화 합성어가 차별적 이미지와 시선을 야기하는 문제를 밝혀내고, 해당 용어의 사용빈도와 인식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다문화’용어가 사람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면 개인의 실제적인 배경을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해당 대상들을 ‘다문화’라는 범주에 귀착시켜 이해하게 된다. 지속적인 다문화 합성어의 사용은 다문화 감수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다문화’의 광범위한 본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용어 사용과 개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공간적·대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 상반기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적 범위는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되었다. 서울지역의 대학교에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많아 국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생은 다양성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우선적 고려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정보는 교차분석, t-test, ANOVA를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및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다루고 연구의 범위와 구성을 설명한다.

제 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다뤄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언급하며 해당 연구의 문제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 합성어’의 개념,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점으로 구성하여 이론적 배경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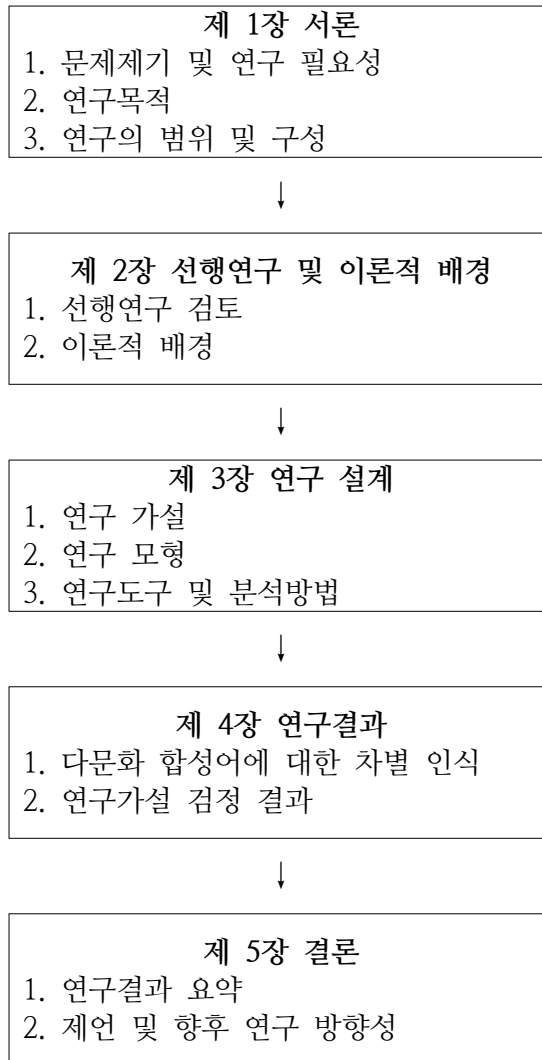
제 3장에서는 연구 설계로 연구가설 설정과 연구모형 설정 그리고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에서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대상의 의의를 밝히며, 설문 설계 및 조사 방법, 검사도구 및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제 4장은 설문 결과를 해설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 검토, 비판이 이루어지며,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까지 다룬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다루며 향후 연구 과제와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다룬다.

연구의 구성을 정리하면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용어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서종남, 2010; 장한업, 2011; 이민경·이수정, 2011; 최유숙, 2017;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오정은, 2022)에서도 특정 대상을 구분짓는 ‘다문화’용어의 남용과 차별 인식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문화가 인칭대명사로 남용되는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 효과를 문제 삼으며, 차별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문제를 지적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용어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와 ‘대체 용어 개발’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다문화 용어의 현황 분석 연구에는 서종남(2010), 최유숙(2017), 국가인권위원회(2021)가 있다. 서종남(2010)은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용어의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며,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도 일관되지 않게 표현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최유숙(2017)은 신문 코퍼스를 활용하여 ‘다문화’를 언어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다문화 공기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는 주로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주로 지원대상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2021)의 보고서에서는 중앙 행정기관 등의 공공 홍보물을 검토하고,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혐오표현과 부적절한 표현 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보고서의 내용 중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변형된 비 법률용어’부분에서 현재 ‘다문화’라는 용어가 인칭대명사가 아님에도 ‘다문화 여성’, ‘다문화 아동’, ‘다문화 장병’등과 같이 남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으로 낙인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용어임을 언급한다.

다문화 관련 용어에 대한 대체 용어 개발 연구에는 장한업(2011), 이민경·이수정(2011), 오정은(2022)이 있다. 장한업(2011)은 이민자 자녀들과 관련한

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에 ‘사회, 가정, 가족, 교육, 축제’ 등을 붙인 표현이 너무나 익숙해져 전혀 어색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민경·이수정(2011)은 정책용어처럼 특정한 대상을 규정하고 공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아동’ 혹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이미지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부 대상만을 연상시키는 용어보다 이주 배경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용어를 모색한다. 오정은 외 4명(2022)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물에 등장하는 인종·이주민 차별표현 실태를 파악하였다. 서울시 홍보물에서 사용되는 주요 차별용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 다문화 여성, 다문화 이주 여성, 외국인 +a, 다문화+ α , 이방인, 일반가정 vs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 추출되었다. 특히나 ‘다문화+ α ’형태의 용어가 무수히 발견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체 용어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서종남, 2010: 장한업, 2011; 이민경·이수정, 2011; 최유숙, 2017;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오정은, 2022)에서 이어져 온 논의인 ‘다문화 용어와 차별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다문화 용어 현황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서종남, 2010: 최유숙, 2017: 국가인권위원회, 2021)’에서 언급된 용어들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 대중이 다문화 용어를 얼마나 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하여 차별점을 가진다. 다른 선행연구(장한업, 2011: 이민경·이수정, 2011: 오정은, 2022)에서는 ‘다문화 관련 용어에 대한 대체 용어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표현이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또한 ‘다문화’용어에 대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대상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오정은(2022)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해 차별표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대상이 ‘인종, 이주민 차별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제한되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이다. 서울 지역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의식과 논의를 다루지만, 대체 용어보다는 ‘다문화’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 용어에 굳어진 차별적 인식을 개선해야 함’을 목적으로 둔다.

부정적 인식이 고착된 용어의 예시로는 ‘가출 청소년’이 있다.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게 편견의 이미지가 강한 ‘가출 청소년’대신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시기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만 15세 이상 경기도 거주민 809명을 대상으로 ‘가출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용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김주현, 김포신문). 설문결과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보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배가량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연상되는 이미지도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탈 행위’가 떠오르는 답변이 대부분인 반면, ‘가정 밖 청소년’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을 연상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를 토대로 용어 변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김주현, 김포신문). 해당 권고는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 되었으나, 2022년 3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성인 248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이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권윤지, 복지타임즈). 이는 대체 용어의 개발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바라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용어의 개발과 사용에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고려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광범위한 표현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01.검색). 여기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생활양식 또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얻은 물질·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포함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01.검색). 문화의 광범위한 의미는 일의적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광의와 협의로 구별할 수 있다. 광의로 문화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예술 이상의 생활양식, 행위양식 및 가치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로 문화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정치·경제·사회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예술·종교·학문·교육 등을 포함한 총체”이다(최용전, 2019: p.849).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는 다양한 모습과 생활방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최희선, 2018: p.10).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란 용어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집중된 정책에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다문화의 본래 의미인 ‘수용’이 아닌 ‘동화’로 정책이 수행된 것이다(공은숙, 2009: pp.27-28). 또한 국내에서의 적응과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활성화 했다(최용전, 2019: p.850). 때문에 ‘다문화’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용어임을 알면서도,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가족으로 규정짓는다. 이같은 ‘다문화’의 범주에는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들로 형성된 가족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최희선, 2018: p.84).

이처럼 ‘다문화’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나 국내에서는 주로 특정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와 다른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2) ‘다문화 합성어’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합성어(compound)’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01. 검색). 둘 이상의 단어를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새로운 개념이 생성되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활용하여 필요한 단어를 경제적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합성어는 단어의 특성과 같으나 결합된 단어들의 각각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이주희, 2005: pp.1-2). 이 과정에서 합성어는 인지·문화·사회 통념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이주희, 2005: pp.15-16).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 합성어’란 ‘다양한 문화’를 일컫는 용어인 ‘다문화’에 다양한 단어를 결합한 것이다. 즉, 용어가 합성어의 형태를 가지며 ‘다문화+ α ’로 통칭되는 것을 의미한다(오정은, 2022: p.34). 다문화 합성어의 예시에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여성’부터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 ‘다문화부부’, ‘다문화아동’, ‘다문화장병’ 그리고 ‘다문화인’처럼 사람을 지칭하는 합성어가 있으며,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실’처럼 교육과 관련된 합성어도 존재한다. 또한 ‘다문화축제’,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다문화 축구 교실’과 같은 다문화가족의 배경이나 구성원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가 다수 발견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오정은, 2023; 이민정·이수정, 2011; 장한업, 2011).

이러한 합성어의 등장 배경은 ‘다문화’가 법률 용어로 처음 사용되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장한업, 2011; 정기선, 20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문화가족’이란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규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의 출생, 인지,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 법률용어로 처음 사용하게 되는 것은 다문화가족법에서 나타난다. ‘다문화가

족'은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정기선, 2021: p.14).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한다.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된 배경은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을 권장하면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02.17.검색).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4년 3월 25일 '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내세우며 「하이패밀리」, 「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등 30여 개의 시민 및 종교 단체가 연합되어 만들어진 단체다(장한업, 2011: p.352). 이 전인 2003년 12월 3일에는 기독교 가정사역단체 「하이 패밀리」가 '혼혈인 인권차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Multi-Culture Family)'으로, '혼혈아' 또는 '혼혈인'을 '다문화가족 2세(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e Family)'로 부르자고 제안했었다(장한업, 2011: p.353). 그러나 이 후 만들어진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에 「하이 패밀리」에서 제안한 용어인 '다문화가족' 대신 연합단체명에 맞춘 '다문화가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가족'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건의되었다. '다문화가정'은 단체명에 맞추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제의되어 용어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장한업, 2011: p.353). 그렇더라도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에는 인권차별 개선이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용어가 법·정책·지원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넘어, 방송과 언론, 커뮤니티 등에서도 사용되면서 '약자'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문화' 자체에서는 차별적 요소가 없다. 그러나 해당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이미지가 생겨났다고 본다. 차별적 이미지는 또 다른 '다문화 합성어'가 등장하는 원인이 되며, 이 같은 용어의 개발과 사용은 차별과 구분을 더욱 심화하는 문제가 된다.

3)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점

‘다문화’라는 용어 뒤에 ‘축제, 프로그램, 자녀, 초등학생, 어린이, 여성, 부부 등’과 같이 다양한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용어가 흔히 발견된다. 합성어는 생성되는 과정에서 인지·문화·사회 통념 등이 반영된다(이주희, 2005: pp.15-16). ‘다문화축제, 다문화교육’과 같이 ‘다문화’의 본래 의미인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경우, 합성어 생성 과정에서도 단어가 가진 각각의 의미를 유지한다. 그러나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다문화 합성어가 많이 발견된다. 해당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다양한 매체와 홍보물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이 만들어낸 용어가 일반화 된 경우가 많다.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차별표현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241개의 홈페이지에서 265건의 차별표현을 발견했고, 이 중에 60.4%에 해당하는 160건이 서울시 위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별로 살펴보면, 58.5%에 해당하는 155건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오정은, 2022: p.28). 해당 보고서에서는 차별용어로 ‘다문화 여성,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자녀, 다문화 아동, 다문화 어린이, 일반가정 vs 다문화가정, 비다문화’등을 꼽으며 ‘다문화+ α ’로 표현된 용어를 다수 발견하였다(오정은, 2022: pp.46-47). 이와 같은 다문화 합성어를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하는 표현이다.

‘차별’의 사전적 개념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18검색). 이에 따라 다문화 합성어가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 배경이 없는 사람들과 차이를 두어 구별을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 여러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해치는 차별 용어와 그 표현은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 표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갈등을 해소하

고 사회적 통합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재현, 2009: p.144).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선곡유화, 2013)는 다문화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변수를 다루고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 거주지역, 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지만 대체로 성별, 연령, 종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은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및 교육적 체험 요인’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다문화 교육이 포함된다. 어린 시절 다양한 문화 및 교육에 접촉한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선곡유화, 2013: pp.186-195).

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설문조사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질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대가설 1. 다문화 관련 교육적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문화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다.

가설 1-1)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가설 1-2)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아동’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가설 1-3)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대가설 2. 전공이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다른 전공 대비 교육계열 전공이 ‘다문화청소년’용어를 많이 접한다.

가설 2-2) 다른 전공 대비 인문계열 전공이 ‘다문화인’ 용어를 많이 접한다.

가설 2-3) 다른 전공 대비 공학계열 전공이 ‘다문화장병/군인’ 용어를 많이 접한다.

대가설 3.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이 다문화 합성어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다문화가족 출신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가설 3-2)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해본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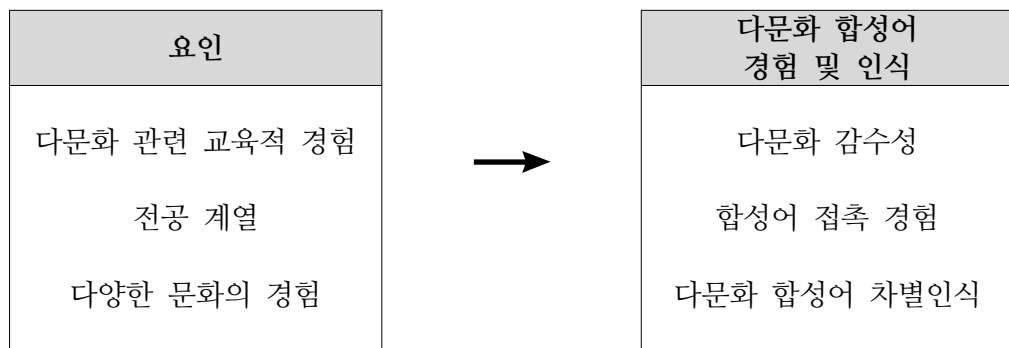
가설 3-3)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가족’ 용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또한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점을 밝혀 해당 용어에 굳어진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조사는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설정한 가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3 절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의 진행을 위한 설문 대상은 서울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이 서울 지역의 대학생으로 다소 한정된 집단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서울지역의 대학교에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많아 국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집단에서 임의 확률 방식으로 대상의 전공,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이 무작위 추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생은 다양성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에 나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 사회를 이끌고, 다양한 집단과 협력하며 생활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우선적 고려 대상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설문 대상으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는 총 241명의 설문 참여자가 모집되었다. 이 중 유효하지 않은 응답을 한 참여자는 제외하고, 총 202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202명의 응답자는 모두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모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학년을 질문한 결과, ‘1학년’ 17명(8.4%), ‘2학년’ 39명(19.3%), ‘3학년’ 62명(30.7%), ‘4학년’ 84명(41.6%)으로 3학년과 4학년의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의 전공을 학문계열로 물어본 결과, ‘인문계열’ 59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55명(27.2%), ‘사회계열’ 52명(25.7%), ‘자연계열’ 14명(6.9%), ‘예체능계열’ 11명(5.4%), ‘교육계열’ 8명(4.0%), ‘의학계열’ 3명(1.5%) 순이었다.

응답자에게 태어난 곳을 물어본 결과, ‘서울특별시’출생이 99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44명(21.8%),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14명(6.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5명(7.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4명(11.9%), ‘외국’ 6명(3.0%) 순으로 분포되었다¹⁾. 출생지를 세부적인 지역 별

로 물어봤으나, 분산된 인원의 그룹으로 묶어 통계 분석 활용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였다. 서울·경기 지역은 응답자 대부분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류하여 그룹을 나누었고, 나머지 지역은 행정구역 위치 별로 통합하였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114명(56.4%), ‘남성’이 88명(43.6%)이었다. 연령은 출생연도로 물어봤으나, 분산된 인원을 통합하여 통계 분석 활용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이려 20대 초반, 중반, 후반으로 그룹을 나누었다²⁾. 이에 따라 ‘2004~2001년생’ 64명(31.7%), ‘2000~1998년생’ 111명(55.0%), ‘1997~1994년생’ 27명(13.4%)을 차지하며, 현재 24~26세 범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의 다양한 문화의 접촉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다문화가족 출신 여부를 물어본 결과, ‘네’ 8명(4.0%), ‘아니오’ 194명(96.0%)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 64명(31.7%), ‘없다’ 138명(68.3%)을 차지하였다. 다문화 관련 교육의 수강 여부에서는 ‘있다’ 112명(55.4%), ‘없다’ 90명(44.6%)이었다. 외국인밀집지역 방문 경험으로는 ‘1~2회’ 66명(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음’과 ‘3~5회’가 각각 42명(20.8%)으로 동일했으며, ‘무수히 많음’ 32명(15.8%), ‘6~10회’ 20명(9.9%) 순이었다. 해외여행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있다’ 164명(81.2%), ‘없다’ 28명(18.8%), 해외 유학 경험에는 ‘있다’ 35명(17.3%), ‘없다’ 167명(82.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을 정리하면 <표 4-1-1>과 같다.

-
- 1) ‘서울특별시’ 99명(49.0%), ‘경기도’ 37명(18.3%), ‘대전광역시’ 9명(4.5%), ‘부산광역시’ 9명(4.5%), ‘광주광역시’ 7명(3.5%), ‘인천광역시’ 7명(3.5%), ‘해외’ 6명(3.0%), ‘전라남도’ 5명(2.5%), ‘대구광역시’ 4명(2.0%), ‘경상남도’ 4명(2.0%), ‘경상북도’ 4명(2.0%), ‘울산광역시’ 3명(1.5%), ‘전라북도’ 3명(1.5%), ‘강원도’ 2명(1.0%), ‘충청북도’ 2명(1.0%), ‘세종시’ 1명(0.5%)
 - 2) ‘1991년생’ 1명(0.5%), ‘1995년생’ 6명(3.0%), ‘1996년생’ 10명(5.0%), ‘1997년생’ 10명(5.0%), ‘1998년생’ 21명(10.4%), ‘1999년생’ 44명(21.8%), ‘2000년생’ 46명(22.8%), ‘2001년생’ 26명(12.9%), ‘2002년생’ 14명(6.9%), ‘2003년생’ 14명(6.9%), ‘2004년생’ 10명(5.0%)

〈표 4-1-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명)	비율(%)	구분	응답자(명)	비율(%)
서울소재 대학 재학 여부			출생지		
예	202	100.0	서울 특별시	99	49.0
한국 국적 여부			인천, 경기	44	21.8
있음	202	100.0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14	6.9
성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5	7.4
남성	88	43.6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24	11.9
여성	114	56.4	외국	6	3.0
학년			출생연도		
1학년	17	8.4	2004 ~2001	64	31.7
2학년	39	19.3	2000 ~1998	111	55.0
3학년	62	30.7	1997 ~1994	27	13.4
4학년	84	41.6	다문화가족 출신 여부		
학문계열			네	8	4.0
인문계열	59	29.2	아니오	194	96.0
사회계열	52	25.7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교육계열	8	4.0	있다	64	31.7
자연계열	14	6.9	없다	138	68.3
공학계열	55	27.2	외국인밀집지역 방문 경험		
의학계열	3	1.5	없음	42	20.8
예체능 계열	11	5.4	1~2회	66	32.7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			3~5회	42	20.8
있다	112	55.4	6~10회	20	9.9
없다	90	44.6	무수히 많음	32	15.8
해외유학 경험			전체	202	100.0
있다	35	17.3			
없다	167	82.7			
해외여행 경험					
있다	164	81.2			
없다	38	18.8			
전체	202	100.0			

2) 설문 설계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설문지 설계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4월 16일에 마무리 되었다. 설문지 설계 과정에서는 총 5번의 수정이 있었다. 2023년 3월 6일에 1차로 작성된 설문지는 ‘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로만 응답이 가능한 설문으로 작성되었다. 리커트 척도로만 분석이 가능했던 1차 설문지는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분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2023년 3월 15일에 작성된 2차 설문지에서는 설문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다문화 합성어에 굳어진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2차 설문지의 질문이 중립적이지 못하여 다시 수정 과정을 거쳤다. 2023년 3월 23일, 3차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3차 설문지는 다문화 또는 다문화 합성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해당 사항을 수정한 4차 설문지가 2023년 4월 15일에 작성되었다. 4차 설문지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고자, 2023년 4월 16일까지 5차 수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생성된 총 문항 수는 39개이며,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11개를 구성하였다.

둘째, ‘다문화 합성어의 이미지’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7개의 문항과 선택적 문항으로 3개를 추가 구성하였다.

셋째, ‘다문화 합성어의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5개의 문항과 선택적 문항으로 2개를 추가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조사를 진행하므로 설문에 대한 다양한 응답지가 필요로 하다. 따라서 온라인 설문조사가 본 연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4월 17일, 설문조사서비스 웹사이트인 ‘Google Forms’에 설문지를 탑재하는 과정을 거쳤다. 온라인 설문은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응

답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응답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응답자는 총 200명을 목표로 하였고, 중복 설문을 방지하기 위해 로그인 서비스를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회수된 응답지는 총 241개이다. 응답자 중 100명은 연구자의 개인 인맥과 각종 대학생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 메신저로 설문링크를 보냈으며, 나머지는 설문 참여자 모집 유료서비스를 활용했다. 설문 참여자 모집 서비스인 ‘픽플리’에서는 2023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진행하여 56명을 모집하였다. 다른 서비스인 ‘서베이지’에서는 2023년 4월 23일 하루 동안 85명을 모집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241개 가운데, 본 연구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응답자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집된 유효한 응답지는 총 202개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효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5점 척도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설문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된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접촉경험과 사용 경험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SPSS를 사용하여 차이분석을 진행했다. t-test(T-검정), ANOVA(분산분석) 그리고 교차분석을 하였다. 변수에 따른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과 접촉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했다. 이 방법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차별 인식

1)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

대학생들은 다문화 합성어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다문화 합성어 중 어떤 유형이 더 많이 사용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접한 경험’을 질문을 하고,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냈다.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의 접촉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지칭하는 것보다 아동·어린이, 초등학생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를 더 많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인’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보다 ‘여성, 부부, 아동·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처럼 세부적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중·고등학생’, ‘다문화장병·군인’ 그리고 ‘비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접촉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예시로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균은 소수점 반올림 값으로 2.2이다. 대부분 다문화 합성어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평균값을 넘는 합성어는 ‘다문화여성’, ‘다문화부부’, ‘다문화아동·어린이’, ‘다문화초등학생’, ‘다문화청소년’으로 5가지이다. 특히나 ‘다문화아동·어린이’가 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험 정도를 비교하면, ‘자주 있다’와 ‘매우 자주 있다’ 응답에서 ‘다문화아동·어린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대상보다 세부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 다문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어린 아이와 여성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접한 경험을 정리하면 <표 4-1-2>와 같다.

〈표 4-1-2〉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접한 경험

경험정도 합성어 예시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5점 척도 ¹⁾
다문화여성	55명 (27.2%)	73명 (36.1%)	40명 (19.8%)	30명 (14.9%)	4명 (2.0%)	2.3
다문화남성	88명 (43.6%)	76명 (37.6%)	33명 (16.3%)	4명 (2.0%)	1명 (0.5%)	1.8
다문화부부	44명 (21.8%)	64명 (31.7%)	50명 (24.8%)	40명 (19.8%)	4명 (2.0%)	2.5
다문화 아동/어린이	24명 (11.9%)	41명 (20.3%)	59명 (29.2%)	61명 (30.2%)	17명 (8.4%)	3.0
다문화 초등학생	73명 (36.1%)	57명 (28.2%)	44명 (21.8%)	21명 (10.4%)	7명 (3.5%)	2.2
다문화 중/고등학생	85명 (42.1%)	70명 (34.7%)	29명 (14.4%)	15명 (7.4%)	3명 (1.5%)	1.9
다문화청소년	47명 (23.3%)	61명 (30.2%)	49명 (24.3%)	37명 (18.3%)	8명 (4.0%)	2.5
다문화 장병/군인	121명 (59.9%)	38명 (18.8%)	23명 (11.4%)	17명 (8.4%)	3명 (1.5%)	1.7
다문화인	68명 (33.7%)	59명 (29.2%)	46명 (22.8%)	25명 (12.4%)	4명 (2.0%)	2.1
비다문화	134명 (66.3%)	39명 (19.3%)	17명 (8.4%)	9명 (4.5%)	3명 (1.5%)	1.6

주: 1) 매우 자주 있다=5 ~ 전혀 없다=1을 기준으로 부여한 평균점수.

대학생들의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을 물어본 뒤, 실제 다문화 합성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용어 이외에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를 사용한 경험을 질문하고,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다문화 합성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사용한 경험

경험 정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5점 척도 ¹⁾
‘다문화가족’이 외의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	85명 (42.1%)	67명 (33.2%)	32명 (15.8%)	15명 (7.4%)	3명 (1.5%)	1.9

주: 1) 매우 자주 있다=5 ~ 전혀 없다=1을 기준으로 부여한 평균점수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영향을 주고 받는지 t-test와 ANOVA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특성은 ‘출생지,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로 나타났다.

출생지에 따라서는 ANOVA로 분석하였는데, 99% 유의수준($p < .01$)에서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 차이가 나타난다($F=3.716$, $p=.003(p < .01)$). 특히, 해외($M=3.33$)출신이 경기·인천($M=1.66$), 호남권($M=1.60$) 대비 95% 유의수준($p < .05$)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t-test 분석 결과,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을 경우($M=2.28$), 없는 경우($M=1.77$) 대비 99% 유의수준($p < .01$)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t=3.073$, $p=.003(p < .01)$)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경우($M=2.07$)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M=1.76$) 대비 95% 유의수준($p < .05$)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t=2.242$, $p=.026(p < .05)$)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4-1-4〉와 같다.

〈표 4-1-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의 관계

합성어 사용 경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친한 다문화가족	유	64	2.28	1.20	3.073	.003**
	무	138	1.77	0.86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	수강	112	2.07	1.05	2.242	.026*
	미수강	90	1.76	0.92		
출생지	서울	99	1.98	1.08	3.716	.003**
	경기, 인천	44	1.66	0.78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14	2.14	0.77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5	1.60	0.74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24	1.96	0.91		
	해외	6	3.33	1.5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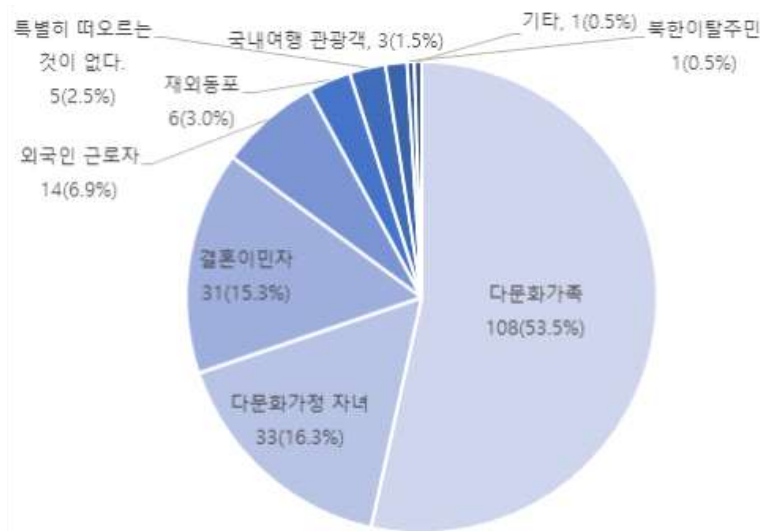
2) 다문화 합성어의 이미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합성어의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과 ‘다문화여성’, ‘다문화아동·어린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각각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과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해 연상되는 형용사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해당 조사에 사용된 다문화 합성어 예시에 ‘여성, 아동, 청소년’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이민경·이수정, 2011; 최유숙, 2017;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오정은, 2022)에서도 주

로 언급되던 용어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정책 대상이나 가족센터의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는 횟수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또한 여성과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약자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선 ‘다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202명 가운데 ‘다문화가족’을 선택한 대학생들이 108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다문화가정 자녀’ 33명(16.3%), ‘결혼이민자’ 31명(15.3%), ‘외국인 근로자’ 14명(6.9%), ‘재외동포’ 6명(3.0%), ‘특pecially 떠오르는 것이 없다’ 5명(2.5%), ‘국내여행 관광객’ 3명(1.5%) ‘북한이탈주민’과 ‘기타’응답이 각각 1명(0.5%) 이었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1] ‘다문화’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
(단위: 명)



N=202

‘다문화여성’에 대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신분을 물은 결과, ‘전업 주부 결혼이주여성’이 152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유학생’ 23명(11.4%), ‘국제기구/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12명(5.9%), ‘외국인 회화강사’ 6명(3.0%), ‘외국인 방송인’ 5명(2.5%), ‘외국인 CEO’ 1명(0.5%), ‘외국인 요리사/주방장’ 1명(0.5%)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2명(1.0%)은 ‘기타’를 선택했다([그림 4-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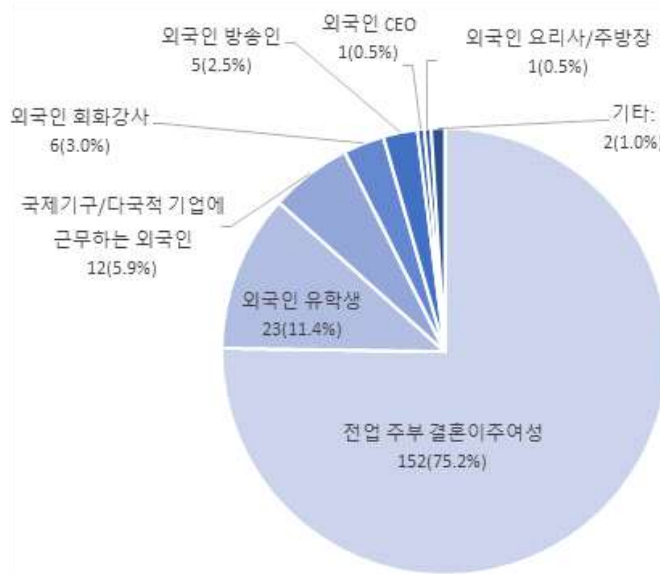
해당 질문에서 ‘전업 주부 결혼이주여성’을 선택한 152명 가운데,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떠오르는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43명(28.3%),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38명(25.0%),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결혼이주여성’ 36명(23.7%),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 15명(9.9%),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는 결혼이주여성’ 14명(9.2%)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6명(3.9%)은 ‘기타’를 선택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결혼이주여성’, ‘동남아지역 결혼이주여성’,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운 결혼이주여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그림 4-1-2] 참조).

이러한 결과를 조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전업 주부 결혼이주여성’을 떠올렸으며, ‘어려움’이 있는 이미지를 연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1-2]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신분과 이미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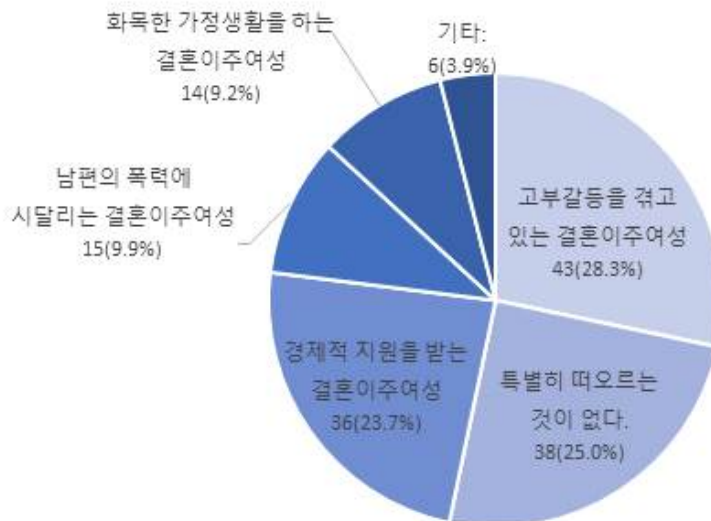
(단위: 명)



N=202

[이미지]

(단위: 명)



N=152

다음으로, ‘다문화아동·어린이’에 대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을 선택하는 질문에서 152명(75.2%)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외국인 가정의 자녀’ 36명(17.8%), ‘조선족 가정의 자녀’ 10명(5.0%), ‘북한이탈 가정의 자녀’ 4명(2.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3] 참조).

해당 질문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선택한 152명에게 ‘다문화아동·어린이’에 대하여 떠오르는 이미지를 추가 질문한 결과,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어린이’ 64명(42.1%), ‘다문화가정 자녀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어린이’ 34명(22.4%),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19명(12.5%), ‘한국어가 서툰 어린이’ 17명(11.2%), ‘따돌림 당하는 어린이’ 15명(9.9%)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를 선택한 3명(2.1%)은 ‘이국적 외모’가 떠오른다는 의견을 남겼다([그림 4-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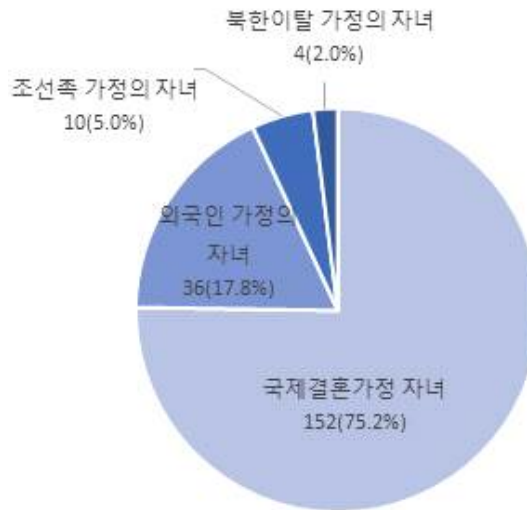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다문화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을 질문한 결과,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150명(74.3%)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가정의 자녀’ 41명(20.3%), ‘조선족 가정의 자녀’ 8명(4.0%), ‘북한이탈 가정의 자녀’ 2명(1.0%), ‘기타’문항에 ‘없다’라고 작성한 1명(0.5%)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참조).

해당 질문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선택한 150명에게 ‘다문화초·중·고등학생’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요청한 결과,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60명(40.0%),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28명(18.7%), ‘다문화가정 자녀 프로그램/방과후 수업을 지원 받는 학생’ 20명(13.3%), ‘한국어가 서툰 학생’ 15명(10.0%), ‘입시 혜택을 받는 학생’ 14명(9.3%), ‘따돌림 당하는 학생’ 12명(8.0%), ‘기타’항목에 ‘이국적 외모’를 적은 응답 1명(0.7%)의 의견이 있었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3] ‘다문화아동·어린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과 이미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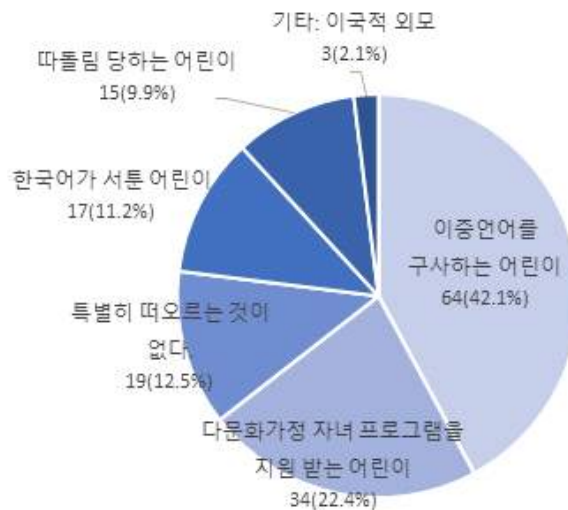
(단위: 명)



N=202

[이미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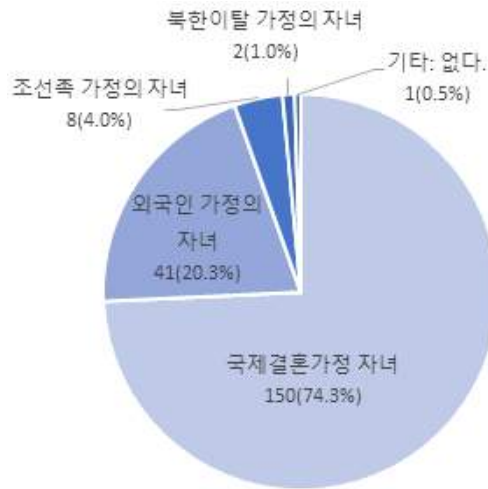


N=152

[그림 4-1-4]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과 이미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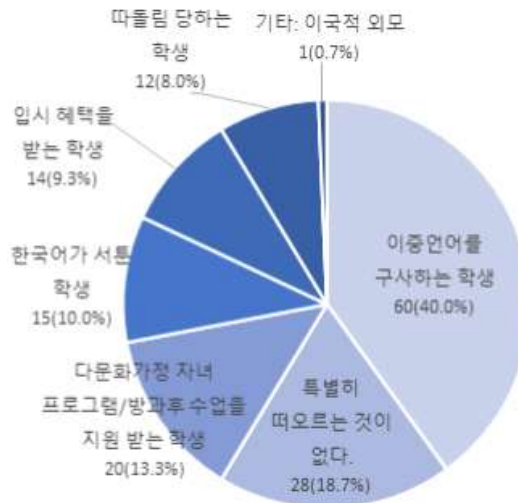
(단위: 명)



N=202

[이미지]

(단위: 명)



N=150

이처럼 대부분은 ‘다문화아동·어린이’와 ‘다문화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떠올리며, ‘다문화’로 지칭되는 아동과 학생들에 대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표 4-1-2>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와 같이, ‘다문화아동·어린이’ 용어를 많이 접해본 만큼 어린이에게 심어졌던 이미지가 해당 대상들이 성장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식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문화 합성어에 연상되는 형용사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문화여성’,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으로 질문했으며,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는 하나로 묶어 ‘외모, 지적능력, 태도, 성격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형용사 총 8개’ 중 2개를 고르도록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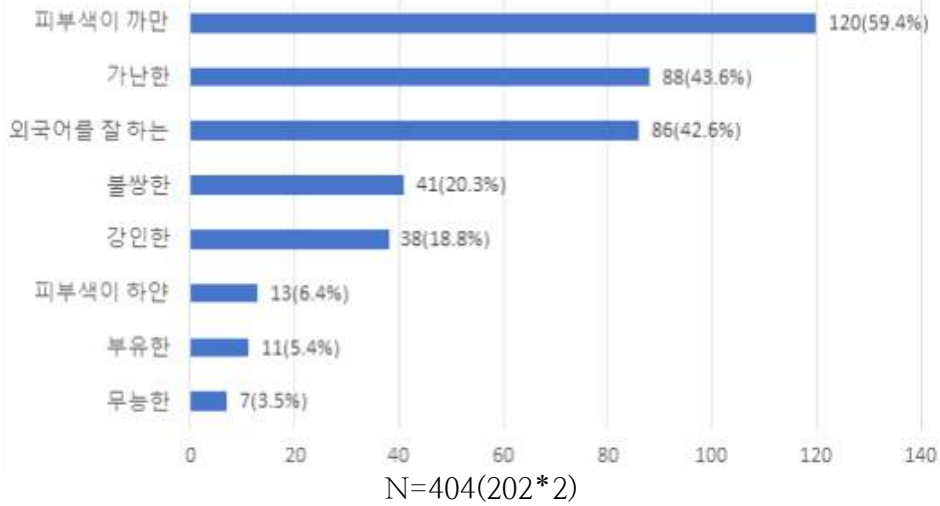
그 결과, ‘다문화여성’에 떠오르는 형용사는 부정적 형용사로 ‘피부색이 까만’ 120명(5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난한’ 88명(43.6%), ‘불쌍한’ 41명(20.3%), ‘무능한’ 7명(3.5%)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형용사는 ‘외국어를 잘 하는’ 86명(42.6%), ‘강인한’ 38명(18.8%), ‘피부색이 하얀’ 13명(6.4%), ‘부유한’ 11명(5.4%) 순이었다([그림 4-1-5] 참조).

마찬가지로 ‘다문화아동’에 대해 연상하는 형용사도 ‘피부색이 까만’이 109명(5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형용사는 ‘가난한’ 62명(30.7%), ‘불쌍한’ 58명(28.7%), ‘바보 같은’ 24명(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형용사는 ‘씩씩한’ 77명(38.1%), ‘똑똑한’ 45명(22.3%), ‘피부색이 하얀’ 19명(9.4%), ‘부유한’ 10명(5.0%)으로 나타났다([그림 4-1-6] 참조).

‘다문화청소년’도 같았다. 떠오르는 형용사를 물어본 결과, 부정적 형용사로 ‘피부색이 까만’ 106명(52.5%)으로 가장 높았고, ‘가난한’ 69명(34.3%), ‘불쌍한’ 45명(22.3%), ‘바보 같은’ 11명(5.4%) 순이었다. 긍정적 형용사는 ‘씩씩한’ 87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똑똑한’ 58명(28.7%), ‘피부색이 하얀’ 19명(9.4%), ‘부유한’ 9명(4.5%) 순이었다([그림 4-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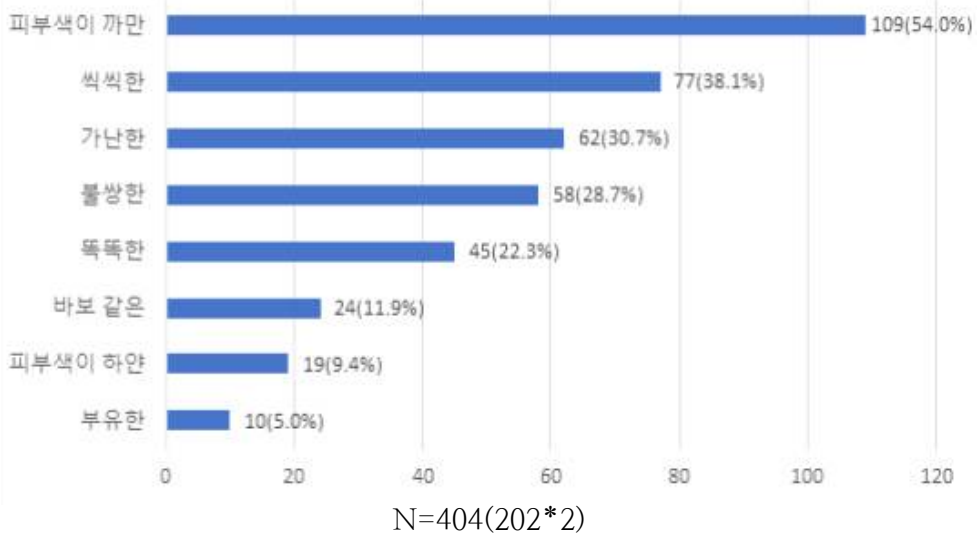
[그림 4-1-5] '다문화여성'에 떠오르는 형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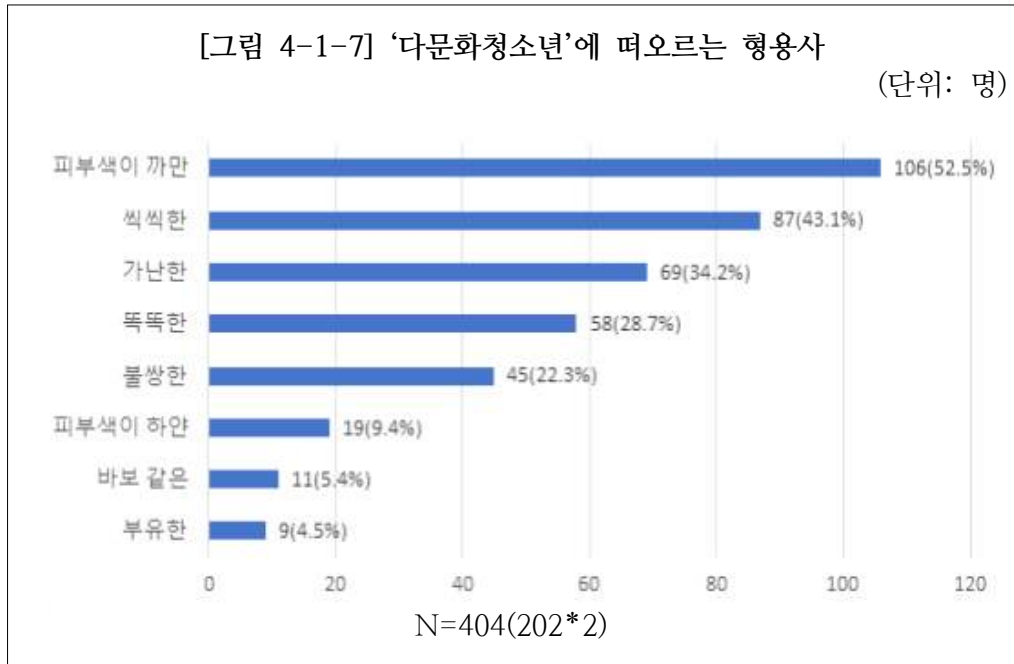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4-1-6] '다문화아동'에 떠오르는 형용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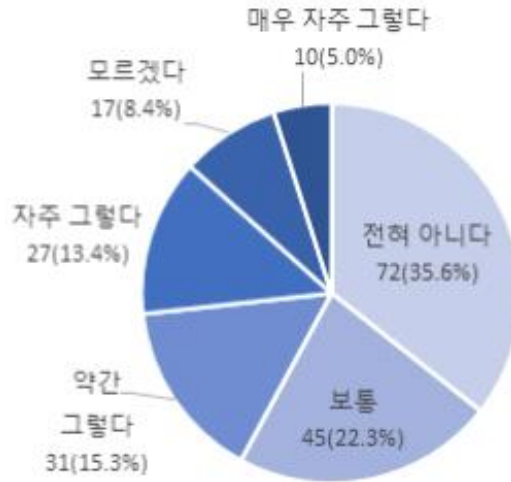
3)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사용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 합성어에 대해 차별이라고 느끼는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들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지,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할 필요를 느끼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다문화’를 사용한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아니다’ 72명(35.6%), ‘보통’ 45명(22.3%), ‘약간 그렇다’ 31명(15.3%), ‘자주 그렇다’ 27명(13.4%), ‘모르겠다’ 17명(8.4%), ‘매우 자주 그렇다’ 10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혀 아니다’와 ‘모르겠다’를 제외한 결과는 총 113명(56.0%)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합성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4-1-8] 참조).

[그림 4-1-8] 우리 사회 ‘다문화’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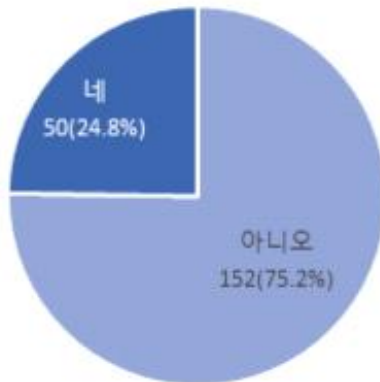
N=202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차별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은 50명(24.8%)이며, ‘차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응답은 152명(75.2%)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여성·어린이·초등학생·군인 등’과 같이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차별이다’ 64명(31.7%), ‘차별이 아니다’ 138명(68.3%)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다문화 합성어에 대해 차별로 느끼지 않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문화가족’용어보다 대상을 세부적으로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에 대해 차별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그림 4-1-9] 참조).

[그림 4-1-9] 다문화 합성어는 차별인가

[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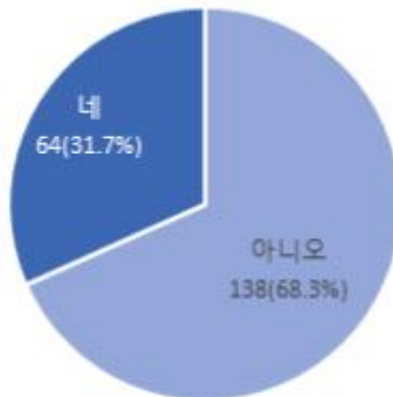
(단위: 명)



N=202

[사람 지칭 합성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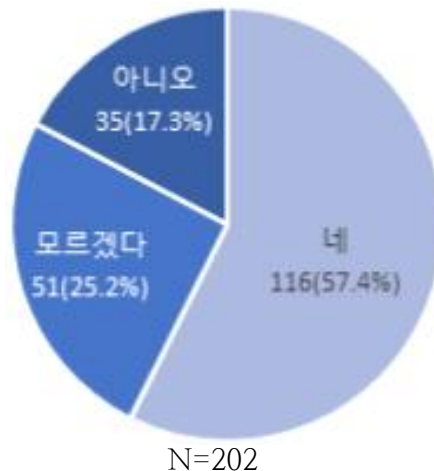


N=202

다문화 합성어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들도 한국인 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결과는 ‘네’라는 응답이 116명(57.4%)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모르겠다’는 51명(25.2%), ‘아니오’ 35명(1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그림 4-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다문화’에 대하여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떠올리기 때문에 다문화로 불리더라도 한국인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4-1-10] 참조).

[그림 4-1-10]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국인’인가

(단위: 명)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문화의 접촉 경험과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보고자 SPSS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 외국인밀집지역 방문 경험 정도’와의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을수록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표 4-1-5>참조), 다문화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을수록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1-6>참조).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방문 경험 정도가 많아질수록 한국인으로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방문경험이 무수히 많은 경우,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외 집단(경험없음~6/10회)에 대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7>참조).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5〉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국인’인지에 대한 인식

(71.9%/50.7%)($X^2=8.624$, $p=.013$)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있음	없음	계
한국인이다	46 (71.9%)	70 (50.7%)	116
아니다	9 (14.1%)	26 (18.8%)	35
모르겠다	9 (14.1%)	42 (30.4%)	51
계	64	138	202

〈표 4-1-6〉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국인’인지에 대한 인식

(67.0%/45.6%)($X^2=8.624$, $p=.013$)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	있음	없음	계
한국인이다	75 (67.0%)	41 (45.6%)	116
아니다	19 (17.0%)	16 (17.8%)	35
모르겠다	18 (16.1%)	33 (36.7%)	51
계	112	90	202

〈표 4-1-7〉 외국인밀집지역 방문 경험 정도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도
‘한국인’인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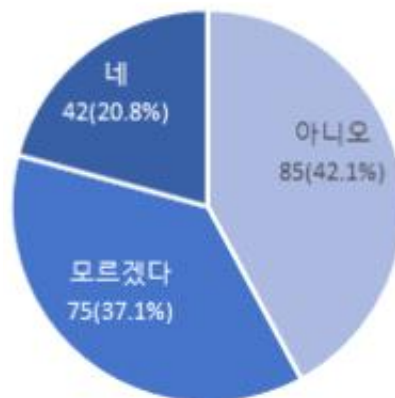
($X^2=16.819$, $p=.032$)

외국인 밀집지역 방문	경험없음	1-2회	3-5회	6-10회	무수히 많음	계
한국인 이다	15 (35.7%)	39 (59.1%)	26 (61.9%)	11 (55.0%)	25 (78.1%)	116
아니다	11 (26.2%)	8 (12.1%)	7 (16.7%)	5 (25.0%)	4 (12.5%)	35
모르겠다	16 (38.1%)	19 (28.8%)	9 (21.4%)	4 (20.0%)	3 (9.4%)	51
계	42	66	42	20	32	202

다음으로,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하는 것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아니오’가 85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 75명(37.1%), ‘네’ 42명(20.8%) 순이었다([그림 4-1-11] 참조).

[그림 4-1-11]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할 필요성이 있는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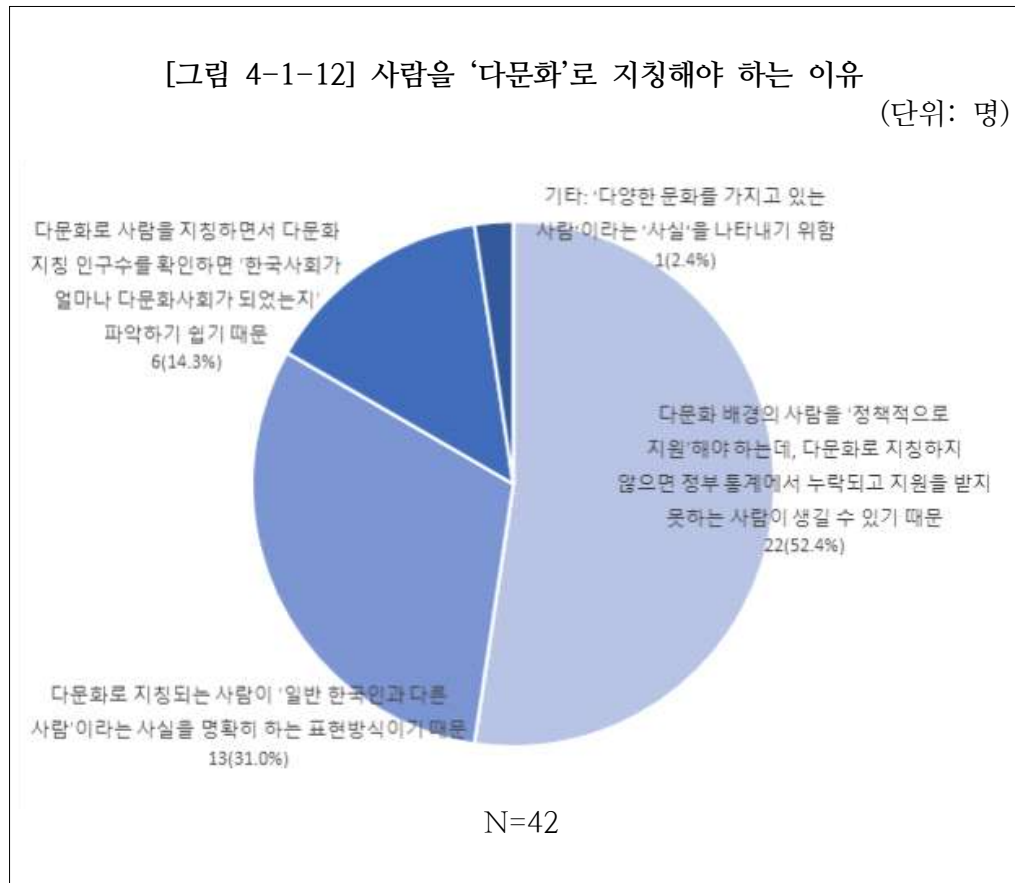


N=202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해야한다’는 응답자 42명에게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배경의 사람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다문화로 지칭하지 않으면 정부 통계에서 누락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2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로 지칭되는 사람이 일반 한국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표현방식이기 때문’이 13명(31.0%), ‘다문화로 사람을 지칭하면서 다문화 지칭 인구수를 확인하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 6명(14.3%)을 차지하였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1명(2.4%)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응답했다([그림 4-1-12] 참조).

[그림 4-1-12]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해야 하는 이유

(단위: 명)



마지막으로,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에게 다문화 합성어에 대하여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36명(17.8%)이 의견을 기술했다. 이들의 의견에는 ‘사람을 다문화로 부르는 것이 차별은 아니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실임으로, 언어에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을 지칭할 때 그 배경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다문화라는 표현을 언급하는 것은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다문화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고 분류하는 것’이라는 의견, ‘다문화에 대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한국의 농촌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이 떠오른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고, ‘특정 집단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추가적인 해석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결과 <표 4-1-2>에서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에 대하여 어린 아이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의 접촉 경험이 다른 용어 대비 많이 나타난다. 이는 선행연구(이민경·이수정, 2011; 최유숙, 2017;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오정은, 2022)에서도 주로 언급되던 용어인데,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정책 대상이나 가족센터의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는 횟수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결혼이민자의 남녀 성비를 비교해보면, 행정안전부의 2021년 1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표에서 결혼이민자 수는 총 174,632명이고, 이 중에 남성이 36,820명, 여성이 137,812명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와 정책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소수인 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둘째, 설문결과 <표 4-1-4>에서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에 대하여 ‘출생지,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해외 출생자의 경우 출생지에 대하여 다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출생자에 비하여 다문화 합성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거나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응답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다문화 합성어 사용 경험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문화 합성어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칭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미래 사회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나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이며, 해당 문제에 대하여 연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설문결과 대부분 ‘다문화아동·어린이’와 ‘다문화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떠올리며, ‘다문화’로 지칭되는 아동과 학생들에 대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확실하게 ‘긍정 또는 부정적 이미지’로 나눌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를 제외하고 모두 편견이 담긴 이미지 또는 편견을 심을 우려가 있는 이미지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이중언어 구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외국어를 잘 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담겨 있고, ‘한국어가 서툰’이미지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를 잘 못 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담긴 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언어 능력으로 판단해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그들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편견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언어로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차별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 입시 혜택’과 같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수혜 이미지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이다. 본 연구에서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수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실제로 해당 문제로 역차별 논란이 종종 발생하였다. 때문에 지원 수혜 이미지도 사회적 갈등과 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문화 합성어에 연상되는 형용사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라 ‘다문화여성’,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공통적으로 ‘피부색이 까만’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4-1-5], [그림 4-1-6], [그림 4-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떠오르는 대상과 이미지([그림 4-1-2]참고)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대다수가 ‘다문화여성’에 대해 ‘전업주부 결혼이주여성’을 떠올리고 어려움이 있는 이미지를 연상했다. 해당 결과와 ‘피부색이 까만’응답을 조합하여 연상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연상한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다문화아동’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떠오르는 대상과 이미지([그림 4-1-3], [그림 4-1-4]참고)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떠올리던 결과는 ‘다문화여성’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피부색이 까만’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에 대비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1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에 결혼이민자는 총 174,632명이다. 그 중 동북아시아 81,595명, 동남아시아 65,103명, 서남아시아 2,660명, 중앙아시아 3,335명, 북미 8,646명, 유럽 6,259명, 아프리카 1,062명 등으로 동북아시아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국적별을 살펴보면, 총 289,529명 중에 동북아시아 109,604명, 동남아시아 143,496명, 서남아시아 2,974명, 중앙아시아 5,281명, 북미 10,477명, 유럽 4,924명, 아프리카 939명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중국, 대만, 일본, 몽골이 있으며,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동티모르가 포함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 국가로 인종의 피부색이 우리와 비슷하다. 또한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로 피부색이 까맣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설문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피부색이 까만’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다. 또한 홍보물이나 교과서 등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피부색을 까맣게 표현한 그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과 인식은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인식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 지칭 대상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설문결과 <표 4-1-5>를 살펴보면,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71.9%/50.7%). 이러한 이유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근처에서 바라보며 다문화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없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설문결과 <표 4-1-6>을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수강 경험이 없는 응답자 대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67.0%/45.6%). 이는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결과 <표 4-1-7>의 경우, 외국인밀집지역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인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외국인밀집지역에 방문하면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구분하여 생긴 결과로 해석된다. 외국인밀집지역은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이 아니며, 외국어와 외국문화 그리고 순수 외국인을 혼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그룹으로 나뉘어 인식하게 되고,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결과 [그림 4-1-10]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들도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본래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본래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연구가설 검정 결과

1) 대가설 1의 검정

대가설 1. 다문화 관련 교육적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문화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다.

〈대가설 1〉은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여성’,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다문화여성’,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각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형용사 8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다중응답 분석을 활용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설 1-1)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여성’에 대한 형용사 2가지 다중응답 선택 결과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나누어 〈표 4-3-1〉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 형용사인 ‘피부색이 까만’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있음 31.2% > 없음 28.2%)을 보였고, ‘가난한’ 이미지를 선택한 비율도 높은 경향(있음 25.2% > 없음 18.3%)을 보였다. 또한 ‘불쌍한’과 ‘무능한’에 대해서도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다문화 여성에 대한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릴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즉, 다문화 관련 교육적 경험이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1〉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여성’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결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	있음	없음	계
피부색이 까만	63(31.2%)	57(28.2%)	120(59.4%)
피부색이 하얀	3 (1.5%)	10 (5.0%)	13 (6.4%)
불쌍한	21(10.4%)	20 (9.9%)	41(20.3%)
강인한	25(12.4%)	13 (6.4%)	38(18.8%)
가난한	51(25.2%)	37(18.3%)	88(43.6%)
부유한	6 (3.0%)	5 (2.5%)	11 (5.4%)
무능한	4 (2.0%)	3 (1.5%)	7 (3.5%)
외국어를 잘 하는	51(25.2%)	35(17.3%)	86(42.6%)
계	112(55.4%)	90(44.6%)	202(100.0%)

가설 1-2)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아동’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아동’에 대한 형용사 2가지 다중응답 선택 결과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나누어 〈표 4-3-2〉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 형용사인 ‘피부색이 까만’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있음 28.2% > 없음 25.7%)을 보였고, ‘가난한’ 이미지를 선택한 비율은 높은 경향(있음 19.3% > 없음 11.4%)을 크게 보였다. 반면에, ‘바보 같은’(있음 5.4% < 없음 6.4%)과 ‘불쌍한’(있음 13.9% < 없음 14.9%)을 선택한 비율은 조금씩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다문화아동에 대한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릴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즉, 다문화 관련 교육적 경험이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2〉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아동’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결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	있음	없음	계
피부색이 까만	57(28.2%)	52(25.7%)	109(54.0%)
피부색이 하얀	10 (5.0%)	9 (4.5%)	19 (9.4%)
바보 같은	11 (5.4%)	13 (6.4%)	24(11.9%)
똑똑한	28(13.9%)	17 (8.4%)	45(22.3%)
불쌍한	28(13.9%)	30(14.9%)	58(28.7%)
씩씩한	47(23.3%)	30(14.9%)	77(38.1%)
가난한	39(19.3%)	23(11.4%)	62(30.7%)
부유한	4 (2.0%)	6 (3.0%)	10 (5.0%)
계	112(55.4%)	90(44.6%)	202(100.0%)

가설 1-3)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가설 1-3〉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형용사 2가지 다중응답 선택 결과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나누어 〈표 4-3-3〉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 형용사인 ‘피부색이 까만’을 선택한 비율이 낮은 경향(있음 25.7% < 없음 26.7%)을 보였고, ‘가난한’ 이미지를 선택한 비율은 높은 경향(있음 21.3% > 없음 12.9%)을 크게 보였다. 또한 ‘불쌍한’을 선택한 비율도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바보 같은’(있음 2.5% < 없음 3.0%)을 선택한 비율은 조금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릴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즉, 다문화 관련 교육적 경험이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3〉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결과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	있음	없음	계
피부색이 까만	52(25.7%)	54(26.7%)	106(52.5%)
피부색이 하얀	9 (4.5%)	10 (5.0%)	19 (9.4%)
바보 같은	5 (2.5%)	6 (3.0%)	11 (5.4%)
똑똑한	35(17.3%)	23(11.4%)	58(28.7%)
불쌍한	23(11.4%)	22(10.9%)	45(22.3%)
씩씩한	54(26.7%)	33(16.3%)	87(43.1%)
가난한	43(21.3%)	26(12.9%)	69(34.2%)
부유한	3 (1.5%)	6 (3.0%)	9 (4.5%)
계	112(55.4%)	90(44.6%)	202(100.0%)

〈대가설 1〉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다문화여성’,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에 ‘가난하다’는 이미지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해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미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교육이 다문화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문제이다. 또한 여전히 다문화가족은 가난하다는 인식이 낙인처럼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가설 2의 검정

대가설 2. 전공이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대가설 2〉는 전공이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ANOVA를 활용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설 2-1) 다른 전공 대비 교육계열 전공이 ‘다문화청소년’용어를 많이 접
한다.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공’에 따라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
화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공에 따라 99% 유의수준($p < .01$)에서 용어를 들어본 경험의 차
이가 나타났다($F=3.968$, $p=.001(p < .01)$). 특히, 교육계열($M=4.25$)이 사회계
열($M=2.50$), 공학계열($M=2.36$), 예체능계열($M=2.00$) 대비 99% 유의수준
($p < .01$)에서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분
석되고, 인문계열($M=2.68$), 자연계열($M=2.36$) 대비 95% 유의수준($p < .05$)에
서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표4-3-4〉참고). 따라서
다른 전공 대비 교육계열 전공이 ‘다문화청소년’용어를 더 많이 접한다는 가
설은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전공에 따라 99% 유의수준($p < .01$)에서 다문화아동, 다문화어
린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의 차이가 나타난다($F=3.968$, $p=.001(p < .01)$).
특히, 교육계열($M=4.38$)이 공학계열($M=2.60$) 대비 99% 유의수준($p < .01$)에
서 ‘다문화아동·어린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5〉참고).

〈표 4-3-4〉 전공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용어 접촉 경험

다문화 청소년	계열	N	평균	표준 편차	F(p)	비고
전공(7)	인문 계열	59	2.68	1.24	4.930 (.000***)	(교육>사회, 공학, 예체능**) (교육>인문, 자연*)
	사회 계열	52	2.50	1.02		
	교육 계열	8	4.25	0.71		
	자연 계열	14	2.36	1.28		
	공학 계열	55	2.20	0.97		
	의학 계열	3	2.00	1.00		
	예체능 계열	11	2.00	1.10		

*p<.05 **p<.01 ***p<.001

〈표 4-3-5〉 전공에 따른 ‘다문화아동·어린이’용어 접촉 경험

다문화 아동·어 린이	계열	N	평균	표준 편차	F(p)	비고
전공(4)	인문 계열	59	3.10	1.11	3.968 (.001**)	(교육>공학**)
	사회 계열	52	3.23	1.21		
	교육 계열	8	4.38	0.74		
	자연 계열	14	3.21	1.19		
	공학 계열	55	2.60	0.99		
	의학 계열	3	2.67	1.53		
	예체능계 열	11	2.73	1.01		

*p<.05 **p<.01 ***p<.001

가설 2-2) 다른 전공 대비 인문계열 전공이 ‘다문화인’ 용어를 많이 접한다.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공’에 따라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인’ 용어를 들어본 경험을 〈표 4-3-6〉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전공에 따라 95% 유의수준($p < .05$)에서 ‘다문화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의 차이가 나타났다($F = 2.235, p = .041(p < .05)$). 그러나 ‘다문화인’에 대해 인문계열 전공 대비 다른 전공의 접촉 경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p > .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전공 대비 인문계열 전공이 ‘다문화인’ 용어를 더 많이 접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4-3-6〉 전공에 따른 ‘다문화인’ 용어 접촉 경험

다문화인	계열	N	평균	표준 편차	F(p)	비고
전공(9)	인문 계열	59	2.25	1.14	2.235 (.041*)	
	사회 계열	52	2.08	1.01		
	교육 계열	8	3.13	1.36		
	자연 계열	14	2.43	1.16		
	공학 계열	55	2.24	1.05		
	의학 계열	3	1.67	1.15		
	예체능 계열	11	2.20	0.82		

* $p < .05$ ** $p < .01$ *** $p < .001$

가설 2-3) 다른 전공 대비 공학계열 전공이 ‘다문화장병/군인’용어를 많이 접한다.

〈가설 2-3〉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공’에 따라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장병/군인’ 용어를 들어본 경험을 〈표 4-3-7〉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전공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수준($p>.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전공 대비 공학계열 전공이 ‘다문화장병/군인’용어를 더 많이 접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4-3-7〉 전공에 따른 ‘다문화장병/군인’용어 접촉 경험

다문화 장병/군인	계열	N	평균	표준 편차	F(p)	비고
전공(8)	인문 계열	59	2.02	1.17	1.998 ($p=0.68$)	$p>.05$ 로 유의하지 않음
	사회 계열	52	1.58	1.00		
	교육 계열	8	2.25	1.58		
	자연 계열	14	1.71	1.14		
	공학 계열	55	1.58	0.85		
	의학 계열	3	2.00	1.73		
	예체능 계열	11	1.18	0.40		

* $p<.05$ ** $p<.01$ *** $p<.001$

〈대가설 2〉에 대하여 전공에 따른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의 차이는 일부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계열 전공이 ‘다문화청소년’ 그리고 ‘다문화아동·어린이’용어를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계열 전공의 수업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용어가 종종 사용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대가설 3의 검정

대가설 3.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이 다문화 합성어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대가설 3〉는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이 다문화 합성어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설 3-1) 다문화가족 출신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해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는 차별인가’에 대해 다문화가족 출신 여부로 구분하여 〈표 4-3-8〉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출신의 경우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로 생각하는 비율(62.5%)이 다문화가족 출신이 아닌 경우(30.4%)에 대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출신의 학생들 중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로 생각하는 비율(62.5%)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37.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p 값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p>.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8〉 다문화가족 출신여부에 따른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차별 인식

($X^2=3.655$, $p=.056$)

다문화가족 출신	O	X	계
차별이다	5 (62.5%)	59 (30.4%)	64 (31.7%)
차별이 아니다	3 (37.5%)	135 (69.6%)	138 (68.3%)
계	8(100.0%)	194(100.0%)	202(100.0%)

가설 3-2)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해본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는 차별인가’에 대해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여부로 구분하여 〈표 4-3-9〉로 나타냈다.

그 결과,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로 생각하는 비율(33.9%)이 수강경험이 없는 경우(30.0%)에 대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p값에서 유의하지 않은 수준($p>.05$)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 중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로 생각하는 비율(33.9%)보다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67.0%)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2〉는 기각되었으며, 다문화 관련 교육이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9〉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여부에 따른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차별 인식

($X^2=.212$, $p=.645$)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경험 있음	수강경험 없음	계
차별이다	37 (33.9%)	27 (30.0%)	64 (31.7%)
차별이 아니다	75 (67.0%)	63 (70.0%)	138 (68.3%)
계	112(100.0%)	90(100.0%)	202(100.0%)

가설 3-3)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가족’ 용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가설 3-3〉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용어는 차별인가’에 대해 유학 경험 유무로 구분하여 〈표 4-3-10〉으로 나타냈다.

그 결과,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차별로 생각하는 비율(40.0%)이 없는 경우(21.6%)에 대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한국에서만 흔하게 사용되는 해당 용어를 차별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표 4-3-10〉 유학경험에 따른 ‘다문화가족’용어에 대한 차별 인식
($X^2=5.284$, $p=.022$)

유학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차별이다	14 (40.0%)	36 (21.6%)	50 (24.8%)
차별이 아니다	21 (60.0%)	131 (78.4%)	152 (75.2%)
계	35(100.0%)	167(100.0%)	202(100.0%)

〈대가설 3〉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 3-3>을 제외하고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3-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설 3-2>는 ‘차별이다’라는 응답에 대하여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에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차별이 아니다’라는 응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값을 보여 가설이 기각되었다. 교육 수강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해당 대상들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제공해주지 못한 것이다. 즉, 현재의 교육이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4) 가설 검정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과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설정한 가설의 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11〉 전체 가설 검정 결과

구분	가설	검정결과
가설 1-1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 여성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
가설 1-2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 아동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
가설 1-3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하여 부정적 형용사를 덜 떠올린다.	×
가설 2-1	다른 전공 대비 교육계열 전공이 ‘다문화 청소년’용어를 많이 접한다.	○
가설 2-2	다른 전공 대비 인문계열 전공이 ‘다문화인’용어를 많이 접한다.	×
가설 2-3	다른 전공 대비 공학계열 전공이 ‘다문화 장병/군인’용어를 많이 접한다.	×
가설 3-1	다문화가족 출신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 1)
가설 3-2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해본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람 지칭 다문화 합성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
가설 3-3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가족’용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

주: 1) 비율 값에서는 가설이 인정되나, 유의도가 $p > .05$ ($p = .056$)로 나타나 가설 검정이 어려움.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면,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육의 커리큘럼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교육 수강 경험이 있음에도 다문화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부정적 형용사를 떠올리며 특히나 가난하다는 인식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에 따라 연상 형용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한 결과,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는 학생은 ‘다문화여성’에 대해서 ‘피부색이 까만’을 선택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있음 13.9% < 없음 45.5%)을 보였고, ‘불쌍한’ 이미지의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있음 4.5% < 없음 15.8%)을 보였다. 또한 ‘가난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향도 낮아졌다(있음 11.9% < 없음 31.7%). 이는 <표 4-3-1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문화아동’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정적 형용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표 4-3-13>, <표 4-3-14> 참고).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가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피부색이 까만’, ‘가난한’등의 부정적 특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관련 교육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낙인과 편견의 인식에 변화를 줄 노력이 필요하다.

〈표 4-3-12〉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여성’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결과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있음	없음	계
피부색이 까만	28(13.9%)	92(45.5%)	120(59.4%)
피부색이 하얀	3 (1.5%)	10 (5.0%)	13 (6.4%)
불쌍한	9 (4.5%)	32(15.8%)	41(20.3%)
강인한	18 (8.9%)	20 (9.9%)	38(18.8%)
가난한	24(11.9%)	64(31.7%)	88(43.6%)
부유한	5 (2.5%)	6 (3.0%)	11 (5.4%)
무능한	4 (2.0%)	3 (1.5%)	7 (3.5%)
외국어를 잘 하는	37(18.3%)	49(24.3%)	86(42.6%)
계	64(31.7%)	138(68.3%)	202(100.0%)

〈표 4-3-13〉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아동’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결과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있음	없음	계
피부색이 까만	24(11.9%)	85(42.1%)	109(54.0%)
피부색이 하얀	5 (2.5%)	14 (6.9%)	19 (9.4%)
바보 같은	6 (3.0%)	18 (8.9%)	24(11.9%)
똑똑한	20 (9.9%)	25(12.4%)	45(22.3%)
불쌍한	17 (8.4%)	41(20.3%)	58(28.7%)
씩씩한	33(16.3%)	44(21.8%)	77(38.1%)
가난한	20 (9.9%)	42(20.8%)	62(30.7%)
부유한	3 (1.5%)	7 (3.5%)	10 (5.0%)
계	64(31.7%)	138(68.3%)	202(100.0%)

〈표 4-3-14〉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형용사 선택 분석결과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있음	없음	계
피부색이 까만	24(11.9%)	82(40.6%)	106(52.5%)
피부색이 하얀	5 (2.5%)	14 (6.9%)	19 (9.4%)
바보 같은	4 (2.0%)	7 (3.5%)	11 (5.4%)
똑똑한	23(11.4%)	35(17.3%)	58(28.7%)
불쌍한	11 (5.4%)	34(16.8%)	45(22.3%)
씩씩한	35(17.3%)	52(25.7%)	87(43.1%)
가난한	22(10.9%)	47(23.3%)	69(34.2%)
부유한	4 (2.0%)	5 (2.5%)	9 (4.5%)
계	64(31.7%)	138(68.3%)	202(100.0%)

또한 전공에 대하여 교육계열이 다른 전공 대비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아동/어린이’용어를 더 많이 들어본 결과도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나 교육계열의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은 졸업 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에는 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때, 교육계열 전공자가 자주 접하였던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아동/어린이’ 용어를 해당 대상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 대상을 명확히 구분 짓는 용어는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계열 전공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용어를 많이 접한다는 점에 대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차별 인식에 관해서는 다문화가족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8명의 다문화가족 출신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다문화 합성어에 대하여 8명의 학생으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였고 ‘다문화’라는 용어가 갑작스레 확산되었다. 이때,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다문화 정책’이 실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다문화가족=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또한 정책 지원 목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칭하는 다양한 다문화 합성어가 만들어져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합성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고 구분하기 위해 축약된 용어로 보이지만, 이는 해당 대상들의 실제 상황과 개별적인 요소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표현이다. 또한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특이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 합성어의 지속적인 사용은 약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점을 밝히고, 편견으로 굳어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합성어의 사용정도를 알아보고자 접촉경험을 조사하였고,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및 분석을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예시로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대부분 다문화 합성어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여성’, ‘다문화부부’, ‘다문화아동·어린이’, ‘다문화초등학생’, ‘다문화청소년’에 대해서는 다른 합성어 대비 접촉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나 ‘다문화아동·어린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대상보

다 세부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 다문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어린 아이와 여성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떠올렸다. 또한 ‘다문화여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3/4정도가 ‘전업주부 결혼이주여성’을 떠올렸으며, 고부갈등, 경제지원, 남편폭력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이미지를 연상했다. 형용사 선택 질문에서도 부정적 형용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대부분 ‘피부색이 까맣고 가난하다’는 이미지를 연상했다. ‘다문화아동·어린이’와 ‘다문화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을 질문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3/4정도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선택했으며, 언어로 이들을 평가하는 편견이 존재했으며, 지원 수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연상되는 형용사에서는 ‘다문화여성’과 마찬가지로 ‘피부색이 까맣고 가난하다’는 이미지를 선택했다.

셋째, 서울소재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합성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다문화 감수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용어와 ‘사람지칭 다문화 합성어’에 대하여 ‘차별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지칭 대상이 가진 배경으로 ‘다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생각은 다문화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는 응답자’와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해본 응답자’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역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한국인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명 중 42.1%인 85명은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42명(20.8%)은 지칭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문화로 지칭하여 해당 대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거나 한국인과 다른 사람임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넷째, 연구 가설에 대하여 채택된 가설은 두 가지였다. 먼저, 다른 전공 대비 교육계열 전공이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아동·어린이’용어를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가족’용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섯째, 추가적인 분석으로 친한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가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여성·아동·청소년’에 연상하는 형용사로 부정적 형용사를 고르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피부색이 까만’, ‘가난한’ 등의 부정적 특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이 ‘다문화=다문화가족’을 연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다문화 합성어에 대하여 편견이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다문화 합성어의 사용은 차별을 야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제 2 절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성

‘다문화’가 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다문화=다문화가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최희선, 2018: p.96). 간혹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비되는 용어로 ‘비다문화’ 또는 ‘일반 가정, 일반 어린이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해당 용어는 ‘다문화’란 특수하다는 의미가 되며, 이주배경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표현이 된다(오정은, 2023, p.47).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합성어는 ‘다문화’라는 특성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차별적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는 언어 습관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하재연, 2018: p.1).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용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문화’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우리와 비교하여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이다. 사회적 지원정책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다문화’라는 용어에는 ‘사회적 약자’라는 맥락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문화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해

보면, ‘다문화=다문화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다면성 의미가 사라진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다문화’가 본래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로 지칭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교 1학년 필수 교양 과정으로 다문화 관련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설문참여 응답자 중 대부분은 ‘다문화여성’에 대해서 ‘피부색이 까만 전업주부 결혼이주여성’을 떠올리며 어려움이 있는 이미지를 연상했다. ‘다문화아동’과 ‘다문화청소년’은 ‘피부색이 까만 전업주부 결혼이주여성이 낳은 아이’로 인식하며, 가난하며 불쌍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 언어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지원 수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행위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인식과 태도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선곡유화, 2013: p.174).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맞는 교육이 필수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선행연구(염미경, 2012: pp.229-230)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은 ‘다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졌으며,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필수 교양 수업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굳어진 편견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분별하게 다문화 합성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차별적 표현임을 분석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별 요소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계열 전공이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아동·어린이’용어를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미래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계열 전공자들은 대부분이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계열 전공자가 자주 접하였던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아동/어린이’ 용어를 해당 대상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 대상을 명확히 구분 짓는 용어는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수이며, 용어에 차별요소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공무원, 교사, 관련기관 종사자, 정책 입안자와 같이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는 우선적 교육이 필요하다(최희선, 2018: p.96). 이러한 노력으로 다문화 합성어 사용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조사는 우리 사회의 용어 사용 현황과 다문화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 거주지역, 직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출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등을 더욱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제 당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문화 관련 용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통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성식. (2019.09.24.). “[법률칼럼] ‘다문화’라는 용어의 그늘(1)”.
재외동포신문. (검색일자:2023.03.22.),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11>
- 강성식. (2019.10.08.). “[법률칼럼] ‘다문화’라는 용어의 그늘(2)”.
재외동포신문. (검색 일자:2023.03.22.),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44>
- 공은숙. (2009).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 -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지인문학 제2집』, 2(0), 27-49, (pp.27-28.)
- 교육부. (2021.04). 교육통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자:2023.02.01.),
검색어: ‘다문화’, ‘문화’, ‘합성어’, ‘차별’
- 김주현. (2020.08.25.). “‘가출 청소년’ 용어, 부정적 인식 강해”.
김포신문. (검색일자:2023.05.18.),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97>
- 권윤지. (2022.08.01.). “가출청소년 아닌 가정밖 청소년… "필요한 것? 자립지원””. 복지타임즈. (검색일자:2023.05.18.)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17>
- 박재현, 이승희. (2009).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지역 · 민족 · 인종 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p.144.)
- 법무부.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검색일자:2023.06.13.)
- 서종남. (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현황분석 및 다문화교육 관계자 FGI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6(2), 145-168.
- 선곡유화, 박순덕, 이영선. (2013).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 『다문화와 평화』, 7(2), 173-203,

(pp.174, 186-195.)

염미경. (2012).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211-233, (pp.229-230.)

오정은. (2022). "2022년도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차별표현 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이민경·이수정. (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1-37.

이완. (2021). "공공 홍보물의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 모니터링".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주희. (2005). "합성어의 의미: 개념론적 해석". 『언어연구』, 21(2), 53-69, (p.2.)

장한업. (2011).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다문화 가정", "다문화교육"-.". 『이중언어학』, 46(0), 347-366.

정기선, 유민이, 조하영, 이정우. (2021). "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 현황분석 : 법령, 자치법규, 통계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보』, 4(1), 1-36.

조선웅, 고재원, 강성록, 구자일, 권은영, 전영수. (2020). "다문화장병에 대한 연구 :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6(3), 315-348, (pp.317-318.)

최용전. (2019). "한국 법률에서의 '다문화'의 개념에 관한 연구.".
『土地公法研究』, 87(1), 845-862, (pp.849-850.)

최유숙. (2017). "신문 코퍼스를 활용한 '다문화'공기어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24(24), (pp.275-301.)

최희선. (2018). "한국의 다문화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호서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전공 국내박사학위논문,
(pp.10, 84, 96.)

하재연. (2018). "차별적 표현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을 통한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p.1.)
행정안전부. (2021.11.0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표

부 록

설 문 지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서울소재 대학생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서울소재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합성어'는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다문화'와 결합된 '다문화+ α '형식의 단어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평소 느꼈던 대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 통계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023 년 4 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이주협력전공
연구자 진 나 라 드림

〈인구사회학적특성 질문〉

다음은 통계적 특성만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당신은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가요?
1)네 2)아니오
2. 당신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1)네 2)아니오
3. [위치] 당신의 대학은 어느 자치구에 있나요?
1)강남구 2)강동구 3)강북구 4)강서구 5)관악구 6)광진구 7)구로구
8)금천구 9)노원구 10)도봉구 11)동대문구 12)동작구 13)마포구
14)서대문구 15)서초구 16)성동구 17)성북구 18)송파구 19)양천구
20)영등포구 21)용산구 22)은평구 23)종로구 24)중구 25)중랑구
4. [학년] 당신은 몇 학년인가요?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5. [전공] 당신의 전공은 어느 학문계열인가요?
1)인문계열 2)사회계열 3)교육계열 4)자연계열 5)공학계열
6)의학계열 7)예체능계열
6. [출생지]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1)서울특별시 2)광주광역시 3)대구광역시 4)대전광역시 5)부산광역시
6)울산광역시 7)인천광역시 8)강원도 9)경기도 10)경상남도
11)경상북도 12)전라남도 13)전라북도 14)충청남도 15)충청북도
16)제주특별자치도 17)세종특별자치시 18)외국
7. [성별]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남성 2)여성

8. [출생연도] 당신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 숫자만 기입해주세요. (ex.1998)

9. [생활비] 당신은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 1) 0원 2) 1~30만원 3) 31~60만원 4) 61~100만원
5) 101~150만원 6) 151~200만원 7) 201~250만원
8) 251~300만원 9) 300만원 이상

10. 당신은 다문화가족 출신인가요?

- 1)네 2)아니오

11. 당신은 주변에 친한 다문화가족이 있나요?

- 1)있다 2)없다

12. 당신은 다문화 관련 수업(강의, 교육)을 들어본 적 있나요?

- 1)네 2)아니오

13. 당신은 외국인밀집지역 방문 경험이 있나요?

*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이민자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지역*
ex) 이태원, 건대와 대림동의 중국인 밀집지역, 동대문 중앙아시아인 밀집지역, 안산 다문화마을, 전라도 광주 고려인마을 등

- 1) 방문 경험 없음 2) 1~2회 3) 3~5회 4) 6~10회 5) 무수히 많음

14. 당신은 해외 여행 경험이 있나요?

- 1)네 2)아니오

15. 당신은 해외 유학 경험이 있나요?

- 1)네 2)아니오

다음은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평소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여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2.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남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3.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부부' 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4.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아동', '다문화어린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5.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초등학생' 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6.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중학생', '다문화고등학생' 이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7.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청소년' 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8.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장병', '다문화군인' 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9.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인' 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요?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10.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비다문화' 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11. 귀하는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 1)전혀 없다 2)거의 없다 3)보통 4)자주 있다 5)매우 자주 있다

다음은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평소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당신은 '다문화'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대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1)결혼이민자 2)다문화가족 3)다문화가정 자녀 4)외국인 근로자
5)국내여행 관광객 6)재외동포 7)북한이탈주민
8)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9)기타:

2. 당신은 '다문화여성'이라는 용어에서

다음 중 어떤 신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1) 전업 주부 결혼이주여성 (2-1.문항으로)
2) 외국인 회화강사
3) 국제기구/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4) 외국인 유학생
5) 외국인 방송인
6) 외국인 CEO
7) 외국인 요리사/주방장
8) 기타:

2-1. 당신은 '다문화여성'이라는 용어에서

다음 중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1)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는 결혼이주여성
3)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

- 4)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결혼이주여성
- 5)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 6) 기타:

3. 당신은 '다문화어린이', '다문화아동'이라는 용어에서
다음 중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1) 국제결혼가정 자녀 (3-1.문항으로)
- 2) 외국인 가정의 자녀
- 3) 조선족 가정의 자녀
- 4) 북한이탈 가정의 자녀
- 5) 기타:

3-1. 당신은 '다문화어린이', '다문화아동'이라는 용어에서
다음 중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1)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어린이
- 2) 한국어가 서툰 어린이
- 3) 따돌림 당하는 어린이
- 4) 다문화가정 자녀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 어린이
- 5)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 6) 기타:

4. 당신은 '다문화초등학생', '다문화중학생', '다문화고등학생'이라는 용어에서
다음 중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1) 국제결혼가정 자녀(4-1.문항으로)
- 2) 외국인 가정의 자녀
- 3) 조선족 가정의 자녀
- 4) 북한이탈 가정의 자녀
- 5) 기타:

4-1. 당신은 '다문화초등학생', '다문화중학생', '다문화고등학생'이라는 용어에
서 다음 중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1)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 2) 한국어가 서툰 학생
- 3) 따돌림 당하는 학생
- 4) 다문화가정 자녀 프로그램/방과후 수업을 지원 받는 학생
- 5) 입시 혜택을 받는 학생

- 6)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 7) 기타:

5. 다음 중 당신은 '다문화여성'에 대해 어떤 형용사가 떠오르나요?
2개만 골라주세요.

- 1) 피부색이 까만 2) 피부색이 하얀
- 3) 불쌍한 4) 강인한
- 5) 가난한 6) 부유한
- 7) 무능한 8) 외국어를 잘 하는

6. 다음 중 당신은 '다문화아동'에 대해 어떤 형용사가 떠오르나요?
2개만 골라주세요.

- 1) 피부색이 까만 2) 피부색이 하얀
- 3) 바보 같은 4) 똑똑한
- 5) 불쌍한 6) 씩씩한
- 7) 가난한 8) 부유한

7. 다음 중 당신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어떤 형용사가 떠오르나요?
2개만 골라주세요.

- 1) 피부색이 까만 2) 피부색이 하얀
- 3) 바보 같은 4) 똑똑한
- 5) 불쌍한 6) 씩씩한
- 7) 가난한 8) 부유한

다음은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평소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 1. 당신은 '다문화'를 사용한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아니다 2) 약간 그렇다 3) 보통
4) 자주 그렇다 5) 매우 자주 그렇다 6) 모르겠다
- 2. 당신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나요?
1) 네 2) 아니오

3. 당신은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나요?
ex) '다문화 여성,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초등학생, 다문화 장병' 등
1) 네 2) 아니오

4. 당신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들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나요?
1) 네 2) 아니오 3) 모르겠다

5. 당신은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 네(5-1.문항으로) 2) 아니오 3) 모르겠다

5-1. 다음 중 당신은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다문화로 지칭되는 사람이 '일반 한국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표현방식이기 때문

2) 다문화 배경의 사람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다문화로 지칭하지 않으면 정부 통계에서 누락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

3) 다문화로 사람을 지칭하면서 다문화 지칭 인구수를 확인하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

4) 기타:

6. (선택) 다문화 합성어에 대하여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Jin, Na-Ra

Major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Dep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term "multicultural compound word" refers to a term that combines the word "multicultural," which means diverse cultures, with another word in the form of "multicultural + α ." In our society, which has entered the multicultural era, terms related to "multicultural" are commonly used. In particular, it is common to refer to people as "multicultural," but in this case, it tends to imply a connection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rather than the original meaning of "multicultural."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college students in Seoul to investigate the public perception of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ssociated "multicultural" with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urthermore, most respondents held the perception that "multicultural women" are "full-time housewives who immigrated due to marriage" and "have dark skin and are poor." They also had the perception that "multicultural children" and

"multicultural teenagers" have "dark skin and are poor." There was also an image of receiving suppor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issues arose where they were judged based on language skills, such as "bilingual" or "poor in Korean." In this way,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have the problem of labeling these subjects with biased images. In the survey on experiences with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it was found that terms referring to specific subjects were used more often than terms encompassing a broad target. Especially, terms referring to women and young children were commonly used more than those referring to men. As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are often used to refer to minorities, whe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ere is concern that it may lead to discrimination and hinder social integration.

To prevent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use of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this study suggests three things. Firstly, a public awareness system such as public advertisement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correct meaning of "multicultural" and reflect it in multicultural education. Secondly, a mandatory general education course on multicultural-related subjects should be offered to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to change the negative image associated with subjects referred to as multicultural. Thirdly, awareness should be raised regarding the problem of creating and using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indiscriminately, and an analytical attitude towards the discriminatory expressions used in current terminology should be fostered. Through such efforts, the use of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in our society should be reduced.

[Keywords] Multicultural compound words, college students, perception survey, multicultural women,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teenagers, multicultural education.